

新皇

THE FIELD

428
CBS 44



APR
3



* 비정규직 사생공인 수료
1955. 2. 10 - 3. 7

↓

4. 10 (X)

↓

5. 10

* 3월 10일 . 1955. 3. 10 *

눈이 내립니다. 흰 꽃송이 처럼
 푸욱 쏟아 쏟아 집니다.
 이런 날엔 어쩔 친구를 찾
 던가 혼자 더벅더벅 싸 다니
 기를 좋아 했는데 지금 나는
 흰 꽃송이처럼 푸욱 쏟아지는
 눈을 내다 보며 걱정해 딱 잠
 겨 있습니다. 추욱 계속되는 위
 에 성이 울며 내피던 구멍이 파
 열이 불어서 흘러내리지 못하



☆筆者 崔貞熙☆

고 넘치기 시작하더니 마당
 은 며칠 사이에 얼음성을 이
 로고 말았습니다. 밤을 자르나
 면 얼음성은 자꾸자꾸 견고해
 갈뿐입니다. 햇문을 여닫을 수
 없어서 밤이나 낮이나 그
 대로 풀니다. 아침 저녁으로 물
 드려 오르내릴 적엔 재를 깔
 지만 잠시 뒤엔 얼음이 재를
 덮어 버립니다. 마당에까지 얼
 음은 엄습해 왔습니다. 추위가
 그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집은 얼
 음에 파묻힐지 모르겠어요.

님의 흠
 시련니까?
 4월 24일

찾아 주는 친구들은 이 얼
 음성을 예찬해 줍니다. 「에쓰끼
 모」의 생활을 탐아가느라고 그
 런다는 동 남극이나 북극에 가
 지 않고 앉아서 남북극은 보게
 되니 좋지 않느냐는 동 「나이
 야가라」북극을 연상한다는 동 여
 머가지 말을 합니다. 다른 친
 구의 집에 이런 광경이 벌어
 졌다면 나도 이 비슷한 말을
 할수 있는 여유를 가질지 모
 립니다. 당신이 집에 있어서 이
 런 광경을 같이 겪는다면
 그 이상의 여유를 가질지도
 모릅니다.
 혼자서 어려운 일을 당
 하게되면 기가 막히기
 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
 야 좋은지 잘피를 찾을 수
 없습니다.
 지난 여름엔 아만兒가 건강

을 잃어서 몹시 허풍거렸습니
 다. 四十가까운 열에 머는
 에 과한 불을 켜 가며 앉지
 도 앉지도 못하는 모양을 혼
 자보고 있느라면 지옥의 유향
 불인들 이 이상 피로울 수 있
 으다 싶었어요. 이제는 건강을
 회복해서 학교에 다닙니다. 이
 봄에 국민학교를 맞추고 여학
 교에 가게 될것입니다.
 요제는 웃학교에 갈 시험준
 비를 하느라고 아침 일찍이면
 학교에 갑니다. 밤이 됩시나 아
 흡시에 돌아옵니다. 다시 건강
 을 잃지 않음과 해서 부끄
 심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겨울에
 감기 한번 앓지않고 부지런히
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더구나
 을 겨울 같은 추위를 이기고
 났다는 일이 얼마나 다행한지
 모르겠습니다.
 그런데 나이 열세살이 되도
 록 아직 물 한그릇 떠 울줄
 모릅니다. 서둘러 때문에 시키
 지않아서 점점 더 서투른 아
 이가 되나 봅니다. 그래도 키
 는 커 자랐습니다. 당신이 알
 고 있는 아랍은 국민학교 二
 학년, 학교에 가려면 아파나 임
 마더러 떠려다 말라고 하는 어
 린애 였지만 지금은 엄마와 키
 가 비슷해 졌습니다. 이제 곧
 엄마 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.
 어젯제 그애 일기책을 물려보
 았더니 十二月 二十四、五、六

참 공교로운 해우(邂逅)다.
 나는 숙희(그 여자에)를 미
 디고 두시간 동안이나 같이 놀
 았다.
 헤이일때가 왔다.
 숙희는 내 목덜미를 꼭 잡
 고 놓지를 않는다.
 「숙희야 인제 갔다 곧 도
 오게。」
 이렇게 말하자 숙희는 싸늘
 한 얼굴로 나를 달고멀히 쳐
 다보며
 「아버지 아직 전쟁 안끝났에
 요?」
 하고 말하였다.
 나는 이 말에도 뭐라고 대
 답할 길이 없었다.
 포성에 시달린 어딘것의 이
 한마디는 평화의 섬 제주도
 머물러 나의 뇌리에서 영영 사
 라지지 않는다.
 숙희는 지금쯤 열한살이 넘
 었을게다. 휴전이 되었으니 정
 말 아버지를 찾았을지도 모
 른다.
 ☆ 修女の白笠
 제주도도 가는 피난선에는 중
 교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.
 그중에는 신학교 학생이며 전
 도부인, 목사, 신부, 수녀등 가
 지각색이었다.
 「L.S.T」 밑바닥에 자리
 잡은 피난민들은 천여명에 가
 랍다.

일이 사흘을 넘겨두었기에 아
 파생각을 했다고 적었더군요.
 언어나 집안 식구에게 아파가
 보고 싶다는 이야길 전혀 하
 지 않으면서도 일기적엔 슬픈
 아파 이야기더군요. 비가 오든
 지 소나기 올던지 하는 날에
 「아파는 어떤 날 어디서 비
 를 맞으실까? 혹은 소나기
 를 맞으실까?」

☆ 夫君 金東煥 씨 ☆



하고 걱정 하기도 하고 말때
 줄의 말때를 보고 아파가 서
 제신것 같았다고 쓰기도 하고
 넘어 가는 해를 보면 아파가
 웃는 얼굴 같다고 쓰기도 하
 고 아파의 꿈을 꾸고 며칠씩
 피로있다고 쓰기도 했겠지요.
 우리 아파이도 언제 커서 여
 학생이 되겠느냐고 귀여운 여학
 생을 보면 슬픈 어떤 말을 하
 던 당신이 이렇게 어른이 다
 된 아파를 보신다면 얼마나 입
 꽃이 떨어지실까.

春風에 부치는 연제나오

향만이라도 이제 五학년이 됩니
 다. 당신은 이 아이가 학교다니
 는 모양을 구경 못하셨어요.
 사뭇 나던 이듬해 대구에 피
 난 내려가서 국민학교에 입학
 했으니까. 향만은 생각나는 나
 도 큰잘 지꺼리는 편이어서 아
 파가 제실 때 심어 놓은 꽃
 나무가 꽃을 피운다든지 아파
 가 쓰던 모자를 본다든지 아파
 언 웃을 본다든지 하는 때면
 너무 간절하게 보고 싶어서 때
 들 때를 졸로다 시되하며 아파
 들 이야기 합니다.
 아파하고 나하고
 만든 꽃 밭에
 하는 노대들 제일 많이 부
 들 뿐 아니라 아파 하고 저
 부들의 발만들던 이야기

하기도 합니다.
 학교에서 작문을 지어오라면
 아파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.
 작년 봄에도 아파하고 저하고
 만든 꽃밭이 피난 갔다 돌아
 오니까 저다 막 가져서 못쓰게
 된 것을 저 혼자 물을 주서 내
 고 물을 뽑고해서 꽃밭을 만
 들었는데 꽃밭을 만들때 힘이
 들었으나 아파 생각을 하면서
 참고 했다는 글을 지어서 집
 안사람들을 우울하게 했어요.
 이제 마당에 얼음이 풀리고
 잔디가 돌아나고 울타리에 개
 나리가 봉오리를 짓기 시작하
 면 그 어떤것들은 봄을 처음
 맞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파 생
 각을 되풀이한 것입니다.
 달이 휘황히 밝은 가을밤도
 그렇지만 만물이 삭고 꽃이
 피는 봄철이던 왜 그다지도 추
 억할 자아내는 계절일까요.
 과듯과듯한 물이 오든 버
 들가지 하나 애처롭도록 아픔
 담겨 된 꽃송이 하나하나가 모
 두 「추억의 精」이 되어 어린
 것들의 눈시울을 저신답니다.
 사람 하나가 등적이 많은 추
 억을 남겨놓는 것을 알았습니
 다.
 이 봄엔 나와 어린것들에게
 아픈 추억을 되풀이 하지 않
 게 당신을 돌아와 주십시오.
 (小說家)

피난선에도 역시 공급(等級)
 의 차는 있어 수녀들은 1, 2, 3
 식당미숫한데 모였다. 나는 특
 과원의 대우를 받고 이 식당
 안에서 수녀들과 같이 지낼수
 있었다. 금남(禁男)의 수드원(修
 道院)에서 내뿜진 흰 고관의
 여인들은 아마 오랫동안 배를
 타보는 모양인지 멀리까지 나
 어 필출을 물었다.
 「음! 음!」 모하는 수녀가
 보인다. 번소에도 못가 편편매
 미 비를거리는 수녀도 있다.
 기도를 하는지 바다에 엮드려
 있는 수녀도 보인다. 고관을 벗
 어 차근차근 게어두는 수녀도
 있다.
 「테이불」에 엮드고 자는 사람
 바닥에서 덩구는 사람백에 기
 대고 자는 사람중 모두 자유
 형(自由型)이다.
 어떤 수녀는 흰 고관 쓴 머리
 를 「테이불」다리에 물어박았다.
 나도 졸았다. 「테이불」에 기대
 여 엮은 잠에 들었다. 얼마를
 자는데 구두발의 충격이 심하다.
 눈을 떠보니 수녀가 구두발
 로 내발을 잠전에 찬 것이었
 다. 옆에 있던 수녀가 도무
 었을 잘못했는지 나를 쳐다 보며
 「아이참 미안합니다!」
 하고 입을 다물었다.
 나는 하도 폭소가 터져나와
 눈시울을 비비며 복도를 거쳐
 3층 피난객들이 자는 곳으로 걸
 음을 옮기었다. (다음호에 또)